

사상체질에 따른 베트남인의 소증 및 병증 특성 연구

권지혜 · 박혜주 · 팜득두옹 · 동상옥 · 장은수 · 이시우 · 김상혁 · 유종향

한국한의학연구원

Abstract

A Study on the Physiological Symptoms and Pathological Symptoms of Vietnames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s

Ji-Hye Kwon, Hye-Joo Park, Pham Duc Duong, Sang-Oak Dong, Eun-Su Jang,
Si-Woo Lee, Sang-Hyuk Kim, Jong-Hyang Yo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s

In this study, the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is were carried out to Vietnamese subject living in Vietnam, and the external applicabili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was evaluated by analyzing the physiological symptoms and the pathological symptoms according to their constitutions.

Methods

Total 170 Vietnamese subjects who live in Hanoi were invited from Sep. 2012 to Jun. 2013 for the research, and subjects were diagnosed by 2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specialis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physiological symptoms and the pathological symptoms according to the Sasang Constitutions.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physiological symptom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s, which were 'digest', 'perspiration', 'excrement', 'hot and cold', 'water' and in the pathological symptoms, which were 'sting pain in head' in Soyangin, 'back pain' in Soeumin, 'chest discomfort' in Taeumin, 'skin discomfort' in Taeumin, 'fatigue in the afternoon' in Soyangin, 'digestion' in Soeumin.

Conclusions

The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which is a Korean traditional medicine is also applicable to foreign countries, and it can contribute to the health promotion.

Key Words: Sasang Constitution, Physiological Symptoms, Pathological Symptoms, Vietnamese

I. 緒論

최근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연령, 성별, 개인의 특성 및 환경적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가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게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학인 사상체질의학은 모든 인간을 획일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생기는 오차나 약의 부작용을 줄이고 체질적 양생과 치료로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길을 제시하였고 이제 마는 동의수세보원 사상인 변증론에서 사상인의 생리, 병리의 차이로 인해 체질별로 체질증과 병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사상체질의학에서는 사람을 4가지 체질로 나누어 땀, 대변, 소변, 소화의 건강을 완실무병이라는 건강의 필수 조건으로 삼았고 이를 바탕으로 체질별로 차별화된 건강지침을 언급하면서² 개인에 따른 차이를 중요하게 다룸으로써 맞춤 의학과 그 틀을 같이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국의 의료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의료 관광을 활성화하여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의 의료시장도 국제적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³, 독창적인 한국 의학의 특징인 사상체질의학은 국외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면이 있다⁴. 최근의 추세에 맞추어 사상체질학을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의학으로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고, 해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국적 및 민족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상체질의학이 한국인의 외형 및 생리·병리 특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의학임을 염두에 두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질별 생리 및 병리 특성 차이를 비교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체질진단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인 素蘊⁵ 및 병증 특성에 관한 조사와 비교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상체질 연구를 살펴보면 일부 미국인이나 몽골인, 연변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시도된 바 있으나 이러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안면, 또는 음식에 관한 연구^{6,7}이거나 외국인 대상 설문지⁸⁻¹⁰ 및 진단틀 개발¹¹에 초점을 두

고 있으며 소증 병증 특성에 관한 연구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1례¹²가 진행되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체질별 소증 및 병증 특성을 알아보고 사상체질의학의 해외 적용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II. 研究對象 및 方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베트남 하노이 전통의학국립병원에서 20세 이상 80세 미만의 베트남 국적을 가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 중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급성 심혈관 질환, 신장 기능 장애 등 심각한 질병이나 신체적 기형이 있거나, 임산부는 제외하였다.

2. 사상체질진단

2인의 사상체질 전문가가 체형, 용모, 소증 및 병증 등을 고려하여 256명의 대상자를 독립적으로 진단하였으며 2인의 전문가 진단이 일치한 170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 수집 방법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연구 진행 및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베트남 전통의학 국립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득한 뒤 진행하였다. 임상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진행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등록된 대상자들 중 체질이 진단된 대상자들은 소증 및 병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미리 교육받은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으며, 이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70)

Contents		Total (%)
Sex	Male	62(36.5)
	Female	108(63.5)
Age	20-29	8(4.7)
	30-39	29(17.1)
	40-49	34(20.0)
	50-59	57(33.5)
	60-69	38(22.4)
	70-79	4(2.4)
Education	Middle School and Below	69(40.6)
	High School	11(6.5)
	College and Above	90(52.9)
Sasang Constitutions	Taeumin	62(36.5)
	Soeumin	57(33.5)
	Soyangin	51(30.0)

위해 자료 수집 전 반복적인 실무자 교육을 통하여 표준화된 방법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병증에 대해서는 실수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4. 소증 및 병증 설문지

체질별 소증, 병증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한의학 연구원에서 국내 증례수집에 사용하고 있는 소증, 병증 설문지와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베트남인 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지를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감수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이를 사상체질을 연구하는 베트남 현지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소증 병증 설문지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대상자 본인이 느끼는 증상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소증 설문지의 경우 식사, 소화, 땀, 대변, 소변, 한열, 음수, 수면의 8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병증 설문지의 경우 머리, 몸, 눈, 입/목, 가슴, 피부, 피로, 감기, 컨디션, 기타 증상 10가지 항목을 조사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20.0을 사용하였고 대상자 체질에 따른 병증, 소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상체질, 소증,

III. 結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들의 체질 분포는 태음인 62명(36.5%), 소음인 57명(33.5%), 소양인 51명(30.0%)이었으며 태양인은 없었다.

2. 대상자의 체질별 소증 특성

베트남 대상자들의 체질별 소증 특성은 식사, 소화, 땀, 대변, 소변, 한열, 음수, 수면의 8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소화 항목에서 '잘 체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소양인이 가장 많았으며 '자주 허기짐'을 느끼는 경우도 소양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땀 항목에서는 '더울 때 땀을 많이 흘린다고' 응답한 경우가 태음인이 가장 많았고, '중간'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소음인, '적게 흘린다고' 응답한 경우는 소양인이 가장 많았다.

대변 항목 중에서는 '대변을 보지 못하는 날이 많다'

Table 2. Association between Sasang Constitution and Physiological Symptoms (N=170)

Variable			Taeum(%)	Soeum(%)	Soyang(%)	p-value
Digest	Upset Stomach	Yes	16(28.1)	17(29.8)	24(42.1)	.045
		No	46(40.7)	40(35.4)	27(23.9)	
	Hunger	Yes	14(35.0)	8(20.0)	18(45.0)	.033
		No	48(36.9)	49(37.7)	33(25.4)	
Perspiration	When It's Hot	A lot	34(42.0)	19(23.5)	28(34.6)	.001
		Moderate	24(34.8)	33(47.8)	12(17.4)	
		A Little	4(20.0)	5(25.0)	11(55.0)	
Excrement	Unable to Excrete on Someday	Yes	12(25.0)	24(50.0)	12(25.0)	.015
		No	50(41.0)	33(27.0)	39(32.0)	
Hot and Cold	Dislike	Cold	10(20.0)	26(52.0)	14(28.0)	.033
		Heat	30(45.5)	15(22.7)	21(31.8)	
		Both	12(40.0)	10(33.3)	8(26.7)	
		Neither	10(41.7)	6(25.0)	8(33.3)	
	Hands	Warm	42(43.3)	24(24.7)	31(32.0)	.014
		Moderate	18(32.1)	22(39.3)	16(28.6)	
		Cold	2(11.8)	11(64.7)	4(23.5)	
		Warm	41(46.6)	20(22.7)	27(30.7)	
Feet	Moderate	14(26.4)	24(45.3)	15(28.3)	.021	
	Cold	7(24.1)	13(44.8)	9(31.0)		
	Warm	18(23.7)	31(40.8)	27(35.5)		
Water	Temperature of Drinking Water	Cold	27(46.6)	14(24.1)	17(29.3)	.027
		Don't care	17(47.2)	12(33.3)	7(19.4)	

고 응답한 경우가 소음인이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태음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열 항목 중 추위와 더위 중 어느 것이 더 싫은지 묻는 문항에서 '추위가 더 싫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소음인이 다른 체질에 비해 가장 많았으며, '더위가 싫다'고 응답한 경우는 태음인이 가장 많았다. 손과 발이 따뜻한지 묻는 문항에서는 '따뜻하다'고 태음인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차갑다'고 응답한 경우는 소음인이 다른 체질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마시는 물의 온도를 묻는 문항에서 '주로 따뜻한 물을 마신다'고 응답한 경우는 소음인이 가장 많았으며, '주로 찬물을 마신다'고 응답한 경우는 태음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3. 대상자의 체질별 병증 특성

베트남 대상자들의 체질별 병증 특성은 머리, 몸, 눈, 입/목, 가슴, 피부, 피로, 감기, 컨디션, 기타 불편한

증상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중 머리 항목에서 '찌르는 듯한 두통'이 있는 경우가 소양인이 가장 많이 응답했다. '등 부위의 통증'을 묻는 문항에서는 소음인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가슴 불편함' 문항에서는 태음인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피부 건조 및 가려움'과 같은 불편한 증상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도 태음인이 다른 체질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 항목에서는 '오후에 피로하다고 응답한 경우 소양인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소화에 자주 문제가 생긴다'고 응답한 경우는 소음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IV. 考 察

본 연구는 사상체질의학의 해외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체질별 소증 및 병증 특성을 조사하였다.

Table 3. Association between Sasang Constitution Types and Pathological Symptoms (N=170)

Variable		Taceum(%)	Soeum(%)	Soyang(%)	p-value
Head	Stinging Pain	Yes	3(15.8)	6(31.6)	.045
		No	59(39.1)	41(27.2)	
Body	Back Pain	Yes	11(32.4)	18(52.9)	.016
		No	51(37.5)	46(33.8)	
Chest	Discomfort	Yes	49(43.4)	38(33.6)	.007
		No	13(22.8)	19(33.3)	
Skin	Discomfort	Yes	53(40.8)	45(34.6)	.016
		No	9(22.5)	12(30.0)	
Fatigue	Afternoon	Yes	11(23.4)	16(34.0)	.040
		No	51(41.5)	41(33.3)	
Condition	Digestion	Yes	3(13.6)	11(50.0)	.050
		No	59(39.9)	46(31.1)	

먼저 대상자의 체질 분포 결과를 살펴보면, 태음인이 62명(36.5%), 소음인이 57명(33.5%), 소양인이 51명(30.0%)으로, 태음인이 가장 많았으나 세 가지 체질 모두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에서 연구된 사상체질 연구를 살펴보면 나라마다 체질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소양인(36.25%), 소음인(20.41), 태음인(13.75), 판별불가인 경우가(29.58%) 순이었으며¹³ 일본의 경우 소음인(43.8%), 소양인(36.8%), 태음인(19.4%) 순의 분포를 보였다¹⁴. 해외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얻어진 체질 분포 결과이기는 하나 이처럼 국외에서의 사상인 분포 비율은 기존에 『東醫壽世保元』에서 언급되었던 사상인 분포비율과 많이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이는 각 나라마다 다른 자연환경과 문화적·사회적 배경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며, 그런 차이가 국민들의 성격이나, 생활습관에 영향을 주어 나라마다 다른 체질 분포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베트남인 대상자들의 체질별 소증 특성을 비교한 결과 소화항목 중 '잘 체하는'자 묻는 문항에서는 소양인이 가장 많았는데, 『東醫壽世保元』에서는 소양인은 비대신소하여 평소 먹기를 잘하며 소화력도 뛰어난 편이라 함으로 소양인 비위의 기능이 좋다고 하였으나¹⁴, 선행 연구¹⁵를 살펴보면 소양소음인이 태양·태음인보다 '평소 식사량이 많지 않으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편'이라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었다. 이는 소양인의 체질 특성 상 예민하고 급한 성격¹⁶으로 인해 음식을 빨리 먹는 경향¹⁷이 있어 다른 체질에 비해 식사 시 더 잘 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소화의 경우 소음인에게 있어 완실무병의 조건이지만 소양인 역시 병중(病中)에 마음이 가라앉아 안정되고 천천히 음식을 먹는다면 그 병이 비록 위중 하더라도 끝에는 좋아질 것¹⁾이라고 함으로 소양인에게 있어 소화상태가 질병 이환 상태에서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 또한 소양인의 경우 다른 체질에 비해 '허기짐을 가장 잘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식욕은 왕성하나 식사량은 적고, 활동량이 많아 쉽게 허기를 느끼는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상인 성격의 설문분석¹⁸에서 소양인의 활동성에 대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 '행동이 빠르고 민첩하다.'라고 하였고, 이 결과를 미루어 보아 소양인이 허기짐을 잘 느끼는 것은 행동 및 성격 특성에 따른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증 항목 중 땀과 관련하여 더울 때 태음인이 가장 많이 땀을 흘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태음인은 평소에 땀이 많다고 한 선행 연구¹⁹의 결과와 일치하는

1)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病變 第五統』 10-12 "...少陽人病中 沈潛安靜 稍稍進食則 其病雖重 終當效也..."

결과로서 태음인의 경우 평소 땀이 많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하였고, 땀구멍이 성겨서 땀을 잘 배출하는 것을 태음인의 완실무병 조건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대변항목에서는 소음인이 '대변을 보지 못하는 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변의 경우 소양인에게는 완실무병의 조건으로 최소 하루 1회 보는 것이 좋지만, 소음인의 경우 2-3일에 한번 보는 것도 무방하다¹⁾ 하였고 소음인이 대변이 잦은 것은 臟局大小에 의한 出放之氣의 과다에서 더욱 불균형으로 치우치는 것으로 병의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²⁾. 기존의 문헌들에서는 소음인만 언급된 경우는 없었으나, 소양소음인이 태양태음인보다 배변을 보는 빈도가 낮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가 있었다²⁰⁾.

한열 항목에서 추위와 더위 중 어느 것이 더 싫은지 물었을 때 소음인이 '추위가 가장 싫다'고 하였고 태음인이 '더위가 가장 싫다'고 응답하였다. 한열은 임상에서 체질진단 시 많이 활용되는 중요한 소증 항목이며, 한열에 따라 체질별로 표현되는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체질을 진단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이다²¹⁾. 선행연구²²⁾를 살펴보면 소음인의 경우 '추위가 더 싫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더위가 싫다'고 응답한 경우는 태음인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체질별 음수 온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본 연구 결과 마시는 물의 온도를 묻는 문항에서 '주로 따뜻한 물을 마신다'고 응답한 경우는 소음인이 가장 많았고, '주로 찬물을 마신다'고 응답한 경우는 태음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열과 관련하여 손과 발이 따뜻하지 묻는 문항에서는 태음인이 '가장 많이 따뜻하다'고 응답하였고, '차갑다'고 응답한 경우는 소음인이 다른 체질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연구들에서도^{22,23)} 수족냉 항목에 소음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어서 베트남 대상자의 체질별 병증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머리, 몸, 눈, 입/목, 가슴, 피부, 피로 감기, 컨디션, 기타 불편한 증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

저 '찌르는 것 같은 두통'이 있는 경우가 소양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소양인에게 두통이 있으면 표증이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²⁴⁾에서는 두통 증상은 소음인에게서 빈발하다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등 부위의 통증을 묻는 문항에서는 소음인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는데 소음인의 경우 가슴부위가 빈약하여 걸을 때에 몸을 앞으로 몸을 수그리는 경향이 있다²⁵⁾. 자세와 등·허리 통증과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통증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 보다 목과 몸통 부분의 굴곡이 큰 것으로 나타나²⁶⁾ 소음인의 자세가 등 부위 통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슴 불편함 문항'에서는 태음인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는데, 태음인은 평소 예증으로 흉격정충을 호소하고, 이는 태음인의 간대폐소(肝大肺小)의 특성상 심폐가 약하므로 다른 체질에 비해 순환기 및 호흡기와 관련한 흉부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피부의 건조함이나 가려움'과 같은 불편한 증상도 태음인이 다른 체질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 질환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아토피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²⁷⁾에서 대상자 43명중 소양인의 비율이 83%를 차지하였고, 피부 소양증을 대상으로 한 연구²⁸⁾에서는 전체 59명중 소양인이 40.7%로 역시 소양인의 분포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아토피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²⁹⁾에서는 대상자 108명 중 태양인을 제외하고 모든 체질이 각 30%대로 고루 분포하고 있어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사상체질의 피부 특성을 살펴보면, 태음인에서 유수분 함량이 다른 체질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³⁰⁾. 그러나 베트남은 고온의 날씨로 인해 태음인의 경우 많은 땀을 흘려 피부 건조나 가려움 같은 피부 불편감을 다른 체질보다 더 많이 호소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소화에 자주 문제가 생긴다'고 응답한 경우 소음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체질에 따른 장부 특성상 소음인은 비위 부위가 약하여 음식을 많이 가리며 먹는 양이 적고 소화력도 약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되며 소화에 관한 체질별 상관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소음인의 경우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 쉽게 체하는 편'이라고 하였고³¹, '감기에 걸렸을 때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소화에 자주 문제가 생긴다고 하였다³².

이와 같이 체질에 따라 주로 호소하는 신체증상이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사상의학에서는 체질 발생기준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부 구조의 기능향진과 기능저하 때문이라고 보고 같은 원인이 작용해도 체질별 수용능력이 다르다고 인정하고 있다³³.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베트남인의 소증, 병증 특성을 확인해보는 것에 더해 몇몇의 유의한 체질 특성들이 사상체질 이론 및 기존의 선행 논문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 고유의 사상체질의학이 베트남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여겨지며, 향후 다양한 후속 연구를 통해 베트남에도 사상체질의학이 보급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아가 사상체질의학 이론에 기초한 건강관리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베트남의 국민 보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해외에서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연구 참여자들의 체질 진단을 사상체질의학 전문의 2인이 독립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가 일치한 경우만 대상자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체질진단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에 의한 체질진단은 측정지표로 표현되지 않는 여러 진단 항목들을 참조하면서 종합적으로 체질을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상체질 진단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²².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자 모집 지역이 베트남 북쪽 하노이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정된 연구이기 때문에 본 결과를 베트남 전체를 대표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베트남의 정확한 체질

분포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안에서의 지형적 차이에 따른 체질 분포의 차이 여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일부 베트남인들의 체질 분포 및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연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제한적이었고, 사상체질 중 태양인을 포함하여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대규모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사상체질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일본과 중국을 넘어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된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매우 의미 있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국외에서의 사상체질의학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

V. 結 論

본 연구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상체질에 따른 소증, 병증의 차이를 파악하여 사상체질의 해외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일부 소증, 병증 항목에서 사상체질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나 한국의 전통의학인 사상체질의학이 베트남인에 적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향후 더 다양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VI.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3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o. 2006-2005175)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 "사상체질의학 연구의 국제적 활성화를 위한 베트남 협력 임상연구(K1336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VII. 參考文獻

1. Study on the role and strategy of Korea for the future health care action. Seoul: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7:117-220. (Korean)
2. Lee JM. Donguisusebowon. Seoul: Haenglim. 1993. (Korean)
3.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_P=3&ARTICLE_ID=2124795
4. Ryu DH, Lee HM, Kim KK, Jeon SH, Kim JW. A study on the Sasang constitutional distribution and the type of diseases and symptoms in Japan. J Sasang Constitut Med. 2011;23(3):361-373. (Korean)
5. Jang ES, Kim HS, Lee HJ, Baek YH, Lee SW. The clinical study on the ordinary and pathological symptom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7;19(3):144-155. (Korean)
6. Lee JH, Kim KS, Lee GS, Yoo JH, Moon YS, Lee SW, et al. A study on the facial morphologic characteristics of mongolian according to Sasangin : pilot study. J Sasang Constitut Med. 2007;19(3):62-74. (Korean)
7. Shin MR, Kim DR, Yoo JS. A study on the acoustic characteristics of the american adults using phonetic system for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7;19(3):75-88. (Korean)
8. Kim KS, Kim SH, Lee GS, Yoo JH, Hwang MW, Lee JH, et al. Development of Mongolian's SDQ(SDQ-M):revision and transla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7;19(3):99-125. (Korean)
9. Lee EJ, Yoo JH. A study on comparison of responses to short form Sasang classification questionnaire for American (SF_SSCQ-A) : pilot test.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1):63-78. (Korean)
10. Yoo JH, Lee EJ, Park JS, Hahn SK, Lee JH, Koh BH. Test-retest method on short form Sasang classification questionnaire for American (SF_SSCQ-A): pilot study.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1):79-84. (Korean)
11. Yoo JH, Kim YY, Do JH, Park KH, Jang ES. The preliminary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pplying Sasang constitutional analysis tool to foreign site based on Yanbian Chinese. J Sasang Constitut Med. 2012;24(3):42-49. (Korean)
12. Kim YY, Yoo JH, Kim HS, Lee SW. A study on the physiological symptoms and pathological symptoms of Japanese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12;24(3):50-59. (Korean)
13. Koh BH, Kim SH, Park BG, Jonathan D.L, Marianne T, Anthony R, et al. A study on the Sasang constitutional distribution among the people in the United State of America. J Sasang Constitut Med. 1999;11(2):119-150. (Korean)
14. Baek TH, Park SS. A correlation research of appetite and dining habit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of Korean Oriental Med. 2004;25(2):77-86. (Korean)
15. Park HJ, Lee YS, Park SS.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sweat, stool, urine, digestion) of Soyang·Soeumin and Taeyang·Taeumin in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6;18(1):107-117. (Korean)
16. Kim JY, Kim HK.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question categories concerning Sasang co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mind. J Sasang Constitut Med. 2003;12(3):124-138. (Korean)
17. Song IB. Sasang Constitution. Seoul:Jipmoondang. 1997. (Korean)
18. Ko WS, Lee EJ, Kim KS, Ko BH. The study on Sasangin's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 Sasang Constitut Med. 2006;18(1):91-106. (Korean)
19. Choi JY, Lee YS, Park SS. The characteristics of perspiratio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of Korean Oriental Med. 2002;23(4):186-195. (Korean)
20. Choi JY, Park SS. A clinical study of stool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2;14(2):58-68. (Korean)

21. Jang ES, Kim MG, Baek YW, Kim YJ, Kim JY. Influence of cold and heat characteristics and health state in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J of Korean Oriental Med.* 2009;21(3):76-88. (Korean)
22. Baek YH, Kim HS, Lee SW, Ryu HG, Kim YY, Jang ES. Study on the ordinary symptoms characteristics of gender differenc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Korea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9;23(1): 251-258. (Korean)
23. Jang ES, Kim HS, Lee HJ, Baek YW, Lee SW. The clinical study on the ordinary and pathological symptom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of Korean Oriental Med.* 2007;19(3):144-155. (Korean)
24. Kim YW, Kim JW. A clinical study of the type of disease and symptom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J Sasang Constitut Med.* 1999;11(1): 119-135. (Korean)
25. Song IB. Well define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oul:Hana media. 1993;38. (Korean)
26. Lee SH. A study on the association between sitting posture and back pain. Incheon:Inh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6.
27. Gu DM. A clinical study based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on the treatment of atopic dermatitis. *J Sasang Constitut Med.* 2002;14(2):69-77. (Korean)
28. Park SS. A clinical study on the treatment of pruritus. *J Sasang Constitut Med.* 1999;11(2):361-376. (Korean)
29. Lim JH, Lee EJ, Koh BH. A study on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topic dermatiti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s. *J Sasang Constitut Med.* 2008;20(1):67-88. (Korean)
30. Lee SK, Nam KA, Sun BK, Kim SB, Song IB. Correlation between Korean healthy women's skin condition and Sasang constitution. *J of Korean Oriental Med.* 2004;25(1):161-171. (Korean)
31. Baek TH, Choi JR, Park SS. A correlation research of digestio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4;16(1):112-119. (Korean)
32. Kim YY, Kim HS, Baek YH, Yoo JH, Kim SH, Jang ES. A study on the constitution type-specific presentation of physical symptoms. *J Sasang Constitut Med.* 2011;23(3):340-350. (Korean)
33. Kim DR. A study on 4 type constitution and life character of obese patients. *J Sasang Constitut Med.* 1997;9(1):303-313. (Korean)